

**현대건축의 공간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학적 중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Centrality shown in Spatial Organiza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since 1960s

서정연* / Suh, Jeong-Yeon

Abstract

From ancient times to today the formation of centrality in architecture has taken very important role as an organizing device. However after 19th century modern architecture focused on the universal aspect and homogeneity of space, and developed its own vocabulary through de-centralization. Since 1960's the reflections on de-humanized space of modern space have been evolved. As those movement has been understood seriously, the centrality can be changed to phenomenological one. And The phenomenological centrality maintains organic balance with its surroundings not trying to form a hierarchic system. So it shows human-oriented tendency and facilitates experiential movements of human body. And it also gives a sense of being. The phenomenological centrality is comprised of center, boundary, and two types of axis. The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centrality can be analyzed as practical and meaningful center, visible boundary, experiential movement, and unexpectable encounters with spaces and nature.

키워드 : 현상학적 중심성, 탈중심, 경계, 축, 체험

Keywords : Phenomenological centrality, De-center, Boundary, Axis, Experience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건축공간에 있어 중심의 구조와 의미는 공간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건축어휘이며 특히 근대이전에는 신성함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기하학적 위계성과 강력한 전달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형태나 공간과 마찬가지로 중심이라는 건축적 어휘 역시 다양한 의미적 층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의 변천, 의식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것이 표상하는 건축적 실체 역시 변해 왔다. 근대 이후 신성(神聖)의 상징성과 형식성으로 요약되는 고전적 중심성은 해체되고 상실되어 균질한 탈중심성으로 대체되며 고전과 단절된 근대공간을 형성하였다. 근대공간은 보편적이며 균질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며 국제주의양식을 통해 모더니즘건축의 전형이 되었으나 인간의 소외, 지역성의 무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건축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간을 역설적으로 소외시킨 근대건축에 대한 반성으로서 다양한 주장이 전개되며 다원

화의 단계로 진입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큰 틀로 묶어 그 흐름들을 이해하면 그 중심에는 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근대적 주체로서의 인간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이고 감성적인 신체를 가진 인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가치관이 건축공간에 반영되는 건축사례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이후 근대공간의 탈중심적 성격을 반성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이해에 의한 현대건축의 공간구성에 있어 중심성 변화와 이에 따른 현상학적 중심성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현대건축의 변화된 중심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장에서는 중심성의 이론적 고찰로서 중심성의 개념과 그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건축공간에 적용한 현상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학적 중심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또한, 정리된 분석의 틀을 토대로 찰스무어(Charles W. Moore),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데이비드 칩퍼필드(David Chipperfield) 등 현상학적 건축을 지향하는 건축가의 글과 작품에서 현대 상황에서 변화된 중심성의 표현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상학

* 이사,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전임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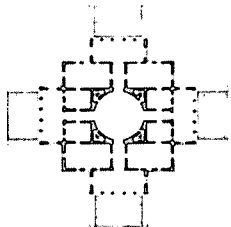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적 중심성의 공간 구성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중심성의 의미와 변천

2.1. 중심의 개념과 고전적 중심성

종교학자인 멀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중심을 신성(神聖)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전통적 사회의 인간을 의미하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us)에게 있어 비균질적이고 단절적 고정점인 중심은 세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 거룩한 공간의 계시는 고정점을 획득하고 균질성의 카오스 속에서 방향성을 확보하며 '세계'를 창건하고 참다운 의미에서 그 속에 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줌을 의미한다. 신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징적 중심은 그 원형(原型)으로 신성한 공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인간은 주변의 혼돈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건축공간에서 볼 수 있는 중심성이란 이처럼 신성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이며 위계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으며 흔히 기하학적 형태의 중심과도 일치한다. 이는 기하학이 건축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단순히 형태로서만 아니라 사고와 인식의 개념으로서 또한 명료성, 통일성, 조화 등의 미적 특질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²⁾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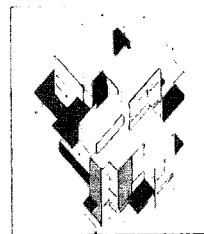
<그림 1> A 팔라디오, 빌라 로툰다, 1554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설계한 빌라 로툰다<그림 1>는 무한과 신성이라는 통일적 완결성과 종교적 숭고함을 상징하는 원과 물리적 우주와 속세를 상징하는 정사각형을 내접시킴으로써 의미와 형태를 완벽히 일치시킴으로써 고전적 중심성을 잘 보여준다.³⁾

2.2. 근대공간과 탈중심화 과정

한스 제들마이어(Hans Sedlmayr)는 서양의 근대조형예술에서 중심성 상실의 배경이 종교적 요소의 쇠락에 있다고 분석하였다.⁴⁾ 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전적 중심성도 그 근거를 잃게 됨을 의미한다. 고전적 중심성은 건축과제의 균등화와 다원화, 건축분야의 자율성과 순수성 추구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사라지게 된다. 18세기 건축과제의 균등화는 건축에서 약화된 혹은 사라진 신성한 중심을 대체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모든 건축물을 동등하게 기념비적 형태로 해석하는 급진적인 태도에서 볼 수 있다. 균등화의 또 다른 측면은

철근콘크리트나 유리와 같은 새로운 건축재료의 도입을 통한 물질적, 기술적 수준의 균등화이다. 따라서 고전적 중심은 모든 건축물의 기념비화 및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기술적용이라는 형태적 평준화와 기술적 평준화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 반면 이런 균등화 과정에는 근대이전의 역사적 양식을 대체하는 현상 즉, 건축구성을 기하학적 형태의 단순하며 합리적인 결합방법으로 환원하는 특징도 보인다. 이런 양식적 다원화는 건축과제의 균등화와 더불어 신성함을 중심으로 구성되던 고전적 중심성을 자의적인 기하학적 결합체로서 대체하게 된다. 또한, 건축의 균등화와 다원화는 고딕이후 조각, 회화, 공예 등 제 예술분야가 건축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융합되었던 위계적 관계를 분열시키며 각 분야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즉, 도상학적 위계관계 혹은 건물과 장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던 건축과 다른 예술들은 독자적인 자율성을 추구하며 장르별로 순수한 조형성에 몰두하게 되며, 자율성의 추구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순수성의 지향은 통합예술작품의 와해를 의미하며 이는 조형작품에서 구성적 통일성의 붕괴로 연결된다. 전체적인 통일성의 상실은 전체를 구성하던 개별 요소들의 분해를 가져와 결국 건축이라는 중심을 기점으로 통일적으로 구성되던 통합예술 작품으로서의 고전적 건축은 개별요소들로 분해되고 건축가의 자율적 조형의지에 의해 재결합되는 기하학적 구성체가 된다. 테오 반 뒤스부르크의 공동주택 습작안<그림 2>을 보면 건축은 벽면의 복잡한 결합체로 추상화되어 상호침투하고 있으며 무한한 공간의 일부를 느슨하게 막고 있다. 이런 기하학적 결합체는 완결된 형태의 기하학적 입체가 아니라 요소로서 선택된 기하학적 형태와 구성이라는 방법에 의해 무한한 균질공간에 단순히 위치하게 됨으로써 외부로 향해 열려진 확장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와 같이 근대건축에서는 기하학적 형태가 갖고 있는 자립적 성질에 의한 전체성을 부정하고 우주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상징적 의미는 사라지며 개방된 보편공간(universal space)을 추구하게 된다.⁵⁾ 안과 밖, 집과 우주라는 이분화를 가능케 했던 건축적 경계의 시각적 소멸은 중심의 존재 역시 소멸시키며 경계를 넘어 무한공간으로 확장하는 운동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즉, 근대공간은 고전적 중심성을 버리고 탈중심화함으로써 통합적 구성을 분해하고 내부를 해체하며 무한한 외부로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인간의 신체적 개입을 배제한 이성 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⁶⁾



<그림 2> 테오 반 뒤스부르크, Study for an apartment block, 1923

1)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학민사, 2001, pp.19-22

2) 윌리엄 블레이크, 건축과 기하학, 기문당, 1990, pp.15-20

3) 로버트 태버너, 팔라디오와 팔라디аниз즘, 시공사, 1999, p.100

4) 한스 제들마이어, 중심의 상실, 문예출판사, 2002, p.25

5) 김광현, 건축형태에서의 수와 기하학, 건축사, 8903

6) 대한건축학회, 건축공간론, 기문당, 2003, p.95

2.3. 중심성의 현상학적 이해

20세기 초의 공간론에서 전제된 형이상학적 공간인식과 경험 구조는 데카르트의 좌표체계에 의한 균질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했으나 1960년대 이후 인간성 회복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반영하며 이성과 정신의 영역을 강조하는 선험적 관념론에서 탈피하여 신체 중심성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다.⁷⁾ 인간이 공간의 중심이 되는 현상학적 이해에 대해 철학자인 메를로-퐁티(M.Merleau-Ponty)는 '위치의 공간성'과 '상황의 공간성'으로 비교설명하고 있다. 위치의 공간성이란 "나는 반성하지 않고 사물들 속에 살고 있으며 공간을 때로는 사물들의 환경으로 때로는 사물들의 공통 속성으로 모호하게 간주"함으로써 공간을 나와 구분된 객체로서 이해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인간은 공간 안에 있으며 물리적 공간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상황의 공간성에서 신체적 경험의 요약인 인간은 "반성하고 공간을 그 근원에서 되찾으며....공간을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분할 불가능한 능력을 발견"함으로써 "공간화된 공간에서 공간화하는 공간으로" 옮겨가며 공간의 중심이 된다.⁸⁾ 따라서 공간의 의미와 체험적 관계를 실존적으로 이해함은 인간이 단순히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속해' 있어 '나'를 중심으로 기하학적 공간과 관계 맺게 됨을 의미한다. 인간 주위의 세계 즉 현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현상학적 관점은 이푸 투안, C.N.슐츠, 무어와 블루머 등에 의해 보다 건축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이푸 투안(Yi-Fu Tuan)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주위 공간은 신체구도에 따라 분화되는데 신체를 중심으로 앞과 뒤, 전방과 후방의 경계가 형성되며 공간적 질서를 구축한다고 보았다.⁹⁾ 이처럼 신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간적 질서를 C.N.슐츠(C.N. Shultz)는 실존적 관점과 연결시켰는데, 인간의 지각이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공간은 인간을 축으로 중심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슴츠에게 있어 인간을 기점으로 하는 중심의 관념은 조직화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중심군이 환경 속에서 참조점으로 구체화되는 것도 의미한다. 나아가 슴츠는 중심을 행위의 장소 즉, 특별한 활동이 수행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소로 정의하며 중심이 갖는 의미를 공간적 구성을 넘어 확장시켰다.¹⁰⁾ 특히 슴츠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공간이 공간체험을 통해 건축적 공간으로 구체화된다고 함으로써 건축의 현상학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찰스 무어와 켈트 블루머 또한 신체상(身體像, body-image)이론을 통해 건축공간에서 신체가 갖는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인간이 무의식중에도 3차원의 경계 속에 자기의 신체를 두는 것을 바탕으로 형성

되는 신체상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상하', '전후', '좌우'의 정신물리학적 좌표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신체상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적 질서는 개인의 공간적 지향 및 가치를 통해 구현되며 물적 모델이라기보다는 심리적 모델이 된다.¹¹⁾ 또한 이들은 공간의 중심성과 관련하여 신체 전체로 포착하는 공간의 감각 즉 신체상에 의한 공간질서는 수학적, 도형적 치수에 의해서 그려지는 객관적 공간의 중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고전적 중심성과 신체에 의한 중심성을 구분하고 있다. 오히려 중심은 기하학적 개념이 아니라 근육감각의 지맥을 가진 근육구성에 관한 개념이며 중력에 대응하는 방향성의 개념이고 더욱이 내부의 감정 혹은 내부감각의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중심이 신체를 바탕으로 체험 혹은 경험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다.¹²⁾ 이 푸 투안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슴츠의 실존적 공간관, 무어와 블루머의 신체상 이론은 공통적으로 인간을 축으로 형성되는 공간적 질서를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대건축 공간에서 상실된 인간의 가치를 찾으려 하고 있다.<표 1> 이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체험되고 기억되는 공간적 질서는 1960년대 이후 건축공간에서의 현상학적 체험을 중시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 중심성을 이루던 신성함 대신에 신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현대에서의 공간적 질서는 현상학적 체험을 적극적으로 의도하며 건축공간구성에서 중요한 구성인자로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고전적 중심성과 대비하여 현상학적 중심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현상학적 중심성은 신체를 축으로 무형적 인식의 장에서 형성되는 정위(定位)의 개념으로 건축공간을 통해 조직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관계적 중심의 질서이다. 따라서 중심이 갖는 의미 역시 '가운데'라는 기하학적 위치로서가 아니라 체험이 형성되는 상황의 출발점이 되며 그렇기에 주관적 인식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유동적 구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현상학적 중심성은 해체주의 건축이나 디지털건축에서 보이는 탈중심성과 외견상 대척점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해체주의 건축의 논리적이거나 파괴적인 작업 속에는 이미 유희와 쾌락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건축의 역동성에는 인간의 감성과 욕구와 같은 인간적인 측면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대비는 조형 형식상의 차이일 뿐 인간 특히 오감을 통해 공간을 체험하는 신체로서의 인간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근대건축의 탈중심과는 모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건사, 1998, pp.273-274

8)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4, p.168, p.371

9)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9, pp.72-73

10)C.N. 슴츠,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1997, pp.34-36

11)K.C.Bloomer·C.W.Moore, 신체·지각 그리고 건축, 기문당, 1999, pp.57-62

12)Ibid., p.87

<표 1> 중심성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

	중심성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
이 푸 투안	자기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신체, 주위공간의 분화 기준
C. N. 솔츠	조직화의 수단, 참조점, 행위의 장소
무어와 블루머	근육구성의 개념, 방향성의 개념, 내부감각의 개념

3. 현상학적 중심성의 요소와 특성분석

3.1. 현상학적 중심성의 요소

(1) 중심과 경계

중심성은 그 형성의 시작점으로서의 초점 즉 중심을 필요로 한다. 멀치아 엘리아데는 신성한 중심의 속성으로서 비균질성과 원심성을 들고 있다.¹³⁾ 그러나, 이는 양괴(量塊)에 의한 중심으로서 실제적인 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혹은 이상적인 목표로서의 중심이 된다. 반면, 폐합성(閉合性)에 의한 중심은 구심화된 양괴의 중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영역을 한정하고 그것을 둘러싸는 행위로서 활동의 장소가 된다. 중심성을 지니는 장소로서의 성격은 장소가 갖는 물리적 특징과 인간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물리적 측면에서 장소는 어떤 일정한 크기가 있으며 주변과 구분된다. 솔츠는 “장소에는 명백한 한계 또는 경계선이 필요하다. 즉, 장소는 그것을 둘러싼 ‘외부’와는 대조적으로 ‘내부’로서 체험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장소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현상학적 중심성에는 경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¹⁴⁾ 경계에 의해 형성된 경계 안쪽의 영역은 그 주변의 혹은 바깥의 영역과 다름을 의미하며 중심의 존재와 더불어 조직화의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 행위를 중심으로 실존의 의미작용을 갖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목표 혹은 초점으로 이해되어 물리적 조건을 갖춘 공간은 여기서 발생하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으며 하나의 장소가 된다.

(2) 동선축과 시선축

인간을 고려한 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심에 이르거나 혹은 이를 기점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인간의 움직임의 전제로 한다. 동선의 축 즉 통로에는 이동 가능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인간이 환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가 거주하는 장소로부터의 출발을 의미하며 자신의 목적과 환경의 이미지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통로를 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로는 인간의 실존에 관한 기본적인 특질을 나타내며, 인간에게는 중요한 근원적인 상징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¹⁵⁾ 한편, 시선축은 중심의 경계를 넘어 외부로 향하는 응시의 경험을 통해 깊이감을 형성하며 또 다른 실존적 체험을 유도한다. 메를로-퐁티는 깊이가 대상 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각

13)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학민사, 2001, pp.19-22

14) C.N.솔츠, Op cit. pp.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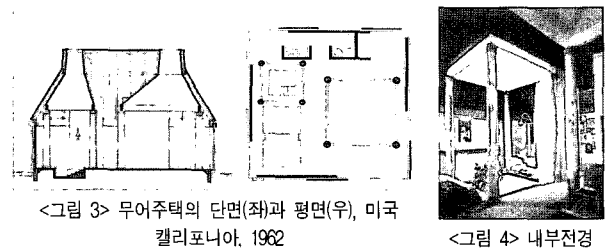
15) Ibid. p.42

하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 형성되는 어떤 불가분의 결합으로서 모든 차원들 중 가장 실존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¹⁶⁾ 중심과 경계, 그리고 그 외부공간을 향해 형성된 축 등은 서로 결합하며 인간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 질서를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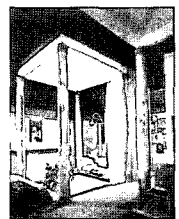
이처럼 중심과 경계, 시선과 동선의 축으로 구성되는 현상학적 중심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존적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세 명의 건축가인 찰스무어(Charles W. Moore),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데이비드 칩퍼필드(David Chipperfield)의 글과 작품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3.2. 찰스 무어

찰스 무어는 저술과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현상학적 건축을 연구하고 설계한 건축가이다. 그는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후반에 걸쳐 자신의 주택을 신축·개축하며 장소의 구축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62년 캘리포니아의 오리ندا(Orinda)에 지어진 무어주택은 그의 건축관이 구체적으로 태동한 사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주택에서 장소는 박공지붕의 중앙천창 아래에 형성된 두 개의 에디쿨라(aedicular)로 드라마틱하게 구현되었다. 무어는 자신만을 위한 조그만 주택인 이 집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철거현장에서 사들인 3미터 높이 전나무 기둥을 잘 활용하였다. 벽이 없이 네 개의 기둥만으로 공간을 구분한 에디쿨라들은 피라미드식으로 경사진 내부천장이 흰 색으로 칠하여져 어두운 전체 천장과 확연히 구분되며 인간을 가운데 품는 중심이 된다. 각각의 에디쿨라는 하나는 거실 및 식당으로 다른 하나는 욕실로 쓰인다. 이 에디쿨라는 조형적 오브제로서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을 위한 시적인 은유며 공상적인 요소로서 현상학적 중심성을 이루는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림 3, 4>



<그림 3> 무어주택의 단면(좌)과 평면(우), 미국 캘리포니아, 1962



<그림 4> 내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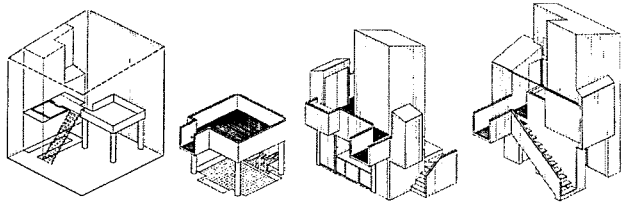
이후 중심을 형성하는 장치는 다양한 형식을 보여준다. 1962년 윌리엄 턴불(William Turnbull), 던린 린든(Donlyn Lyndon) 등과 함께 설립한 MLTW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 1965년에 지어진 씨 랜치(Sea Ranch)콘도미니엄은 캘리포니아의 해안 절벽이 5,000에이커의 풍광이 좋은 대지에 지어진 10개의 커다란 방, 타워, 중정, 일광욕실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사회이다. 여기서 중심의 역할은 에디쿨라가 변형된 중층 테크가 맡

16) 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4, p.389

고 있으며, 오린다 주택에서 느슨하게 표현되던 통로는 유닛내부의 계단과 옥외의 연결통로 등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며 다양한 시각체험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자리잡는다. 각각의 유닛은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중층 데크와 주방과 욕실이 수직으로 일체화된 볼륨으로 구성된다. 데크의 아래쪽은 바닥레벨이 낮추어져 있어 오붓한 공간감을 증진시킨다.<그림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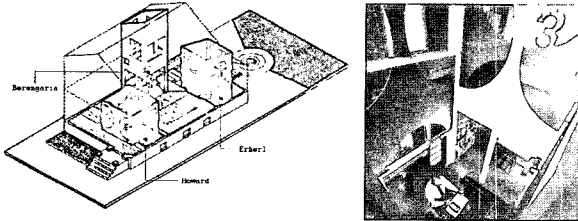


<그림 5> 유닛내부전경



<그림 6> 좌측부터 기본형 유닛, 중층 데크, 주방/욕실 A형,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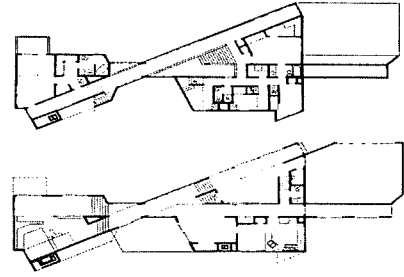
새로 이사하여 지은 뉴 헤이븐의 주택<그림 7, 1966년>에서 무어는 서로 다른 형태의 타워를 통해 장소를 형성하고 수평과 수직의 통로를 주었다. 이 통로들은 각 타워를 연결하며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래서 체험을 동반하는 움직임을 만든다. 원초적 형태의 에디쿨라에서 시작한 중심 만들기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형식을 취하며 형태도 다양



<그림 7> 뉴 헤이븐의 무어주택(좌), 내부전경(우), 미국 코네티컷

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이미 오린다 주택에서부터 에디쿨라로 나타난 중심의 배치는 기능에 따라 평면에 배치되어 주택 전체가 하나의 고전적 중심에 묶이지는 않고 있다. 신체상 이론을 통해 본 중심의 의미가 인간 신체에 있듯이 무어의 중심은 신체의 활동을 근거로 하며 그 중심들의 배치는 합리적인 기능해석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중심점들 간의 연결 즉 축의 형성은 기능에의 대응과 더불어 움직임을 통한 현상학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기능이상의 의미가 있다. “신체·지각 그리고 건축”에서 공저자인 유델(Robert Yudell)은 “신체의 세계와 사는 장소의 세계와의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유동적이다. 장소는 피부경험의 표현으로서 만들어지고 반대로 경험은 이전에 만들어진 장소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 과정을 우리들이 의식하고 있던 순진하게 있던 우리들의 신체와 동작은 건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¹⁷⁾고 함으로써 움직임의 실존적 의

미를 설명하고 있다. 1970년 코네티컷 주의 윗브리지에 지어진 스텐 주택(Stern House)에서는 통로를 중시한 평면구성을 볼 수 있다. 긴 통로는 주택의 중심위치를 서로 엇갈려 차지하며 사람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이 집에서 통로는 높낮이의 변화, 엇갈려 만들어진 결절점, 방들의 시각적인 연결 등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그림 8>



<그림 8> 스텐 주택의 1층(아래), 2층(위) 평면, 미국 코네티컷, 1970

건축사가인 로즈마리 블레터(Rosemarie Haag Bletter)가 무어의 건축을 장소와 통로의 의식(rite of passage and place)이라고 간결하게 특징지었듯이,¹⁸⁾ 무어의 현상학적 중심성의 구성은 에디쿨라(aedicula)와 통로로 요약된다. 그에게 있어 에디쿨라는 인간의 행위를 기다리는 빈 공간이며, 현상학적 중심이다. 그 중심에 인간이 놓여짐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장소가 되고 의미를 얻게 된다. 중심을 감싸는 경계는 기둥 또는 벽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축은 기능을 중시하되 시선의 경험을 유도하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구성되었다. 무어는 주택작품을 통해 현상학적 중심성의 원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벽 없이 네 개의 기둥과 천장으로 만들어진 고전적 공간인 에디쿨라를 기본으로 체험의 내용이 있는 통로, 그리고 색채와 장식, 상황에 따라 은유를 담은 유연한 형태적용 등은 실존적 공간의 충실한 기본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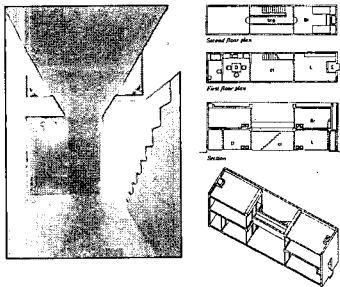
3.3. 안도 타다오

안도에게 있어 건축의 본질은 형태의 단순한 조각이 아닌 공간의 구축과 장소의 확립이다. 이것이 콘크리트라는 인공재료와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유이다. 특히 기하학의 형태사용에 대해 안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사고혼적인 기하학이 어떻게 건축화 되었는가를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 젊어서 건축 기행을 떠났다. 그리고 기하학의 힘에 의해 지어진 건축의 상징성이 주위를 지배하고 자극하는 힘을 확인하고 싶었다..... 아돌프 로스의 로스하우스에서 단순한 상자 속에서 라움플란(Raumplan)이라는 평면을 빙글 빙글 전개시켜 가는 단순한 조각만으로도 공간이 매우 풍부해지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¹⁹⁾

17)K.C.Bloomer · C.W.Moore, Op cit. p.85

18)a+u, The Work of Charles W. Moore, p.61

이처럼 안도에게 있어 기하학적 형태는 조형적 조작을 위해 대상이 아니라 체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틀이다. 그의 대표작인 일본 오사카의 스미요시(住吉) 주택<그림 9, 1976>은 콘크리트 상자의 단순함이 담은 정신의 풍요로움을 보여준다. 주변이 목조 나가야(長屋)주택들이 즐비한 서민주택가로 부지의 폭과 깊이가 각각 3.6미터와 12.6미터에 불과한 협소한 장소에서 안도는 중앙의 보이드를 통해 자연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는 현상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안도는 “내가 콘크리트를 차갑고 딱딱한 것으로 인식할 때, 나에게 신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인지된다. 인간의 몸은 이처럼 세계와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신체(shintai)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것은 오로지 신체만이 가능하다. 신체는 세계에 반응하는 감각의 존재인 것이다.”²⁰⁾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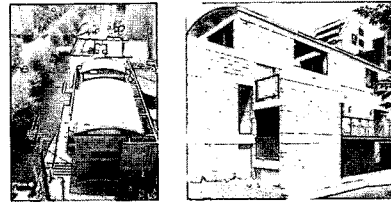
<그림 9> 스미요시주택의 중정과 도면

며 물리적인 몸(body)이 아닌 정신과 통합한 육체 즉 신체와 건축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집에서는 중정의 통로에서 신체와 세계와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거실에서 식사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중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외부로

서 잠깐이지만 자연을 경험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르 꼬르뷔제에의 건축적 선택보다도 현상적인 특성이 한층 강하다. 이처럼 움직임은 안도에게 있어 단순한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주변을 체험하는 살아있음의 실존적 의미이다;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위치한 신체는 출발점에서 있으며 이윽고 ‘저기(there)’를 인식한다. 이렇게 거리의 인식을 통해 아니 그 거리 사이에 살아있음으로 해서 주위의 공간은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사물이 된다.”²¹⁾ 또한, 신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빛, 바람, 비와 같은 자연의 움직임도 단순한 기하학에 도입되어 복합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자기 완결적이고 정지된 사물인 기하학은 동적인 상태의 존재자인 신체와 자연의 움직임이 개입될 때 변형되며 다양한 관점들이 순회하는 관찰자의 눈에 중첩됨으로써 현상학적 거리로서 체험되는 것이다.²²⁾ 스미요시 주택은 두 개의 솔리드와 한 개의 보이드가 각각 삶의 중심과 체험의 중심을 이루고 솔리드를 잇는 동선의 축이 하늘과 땅을 잇는 체험의 축과 교차하면서 단순한 형태이지만 미묘한 복잡을 통해 현상학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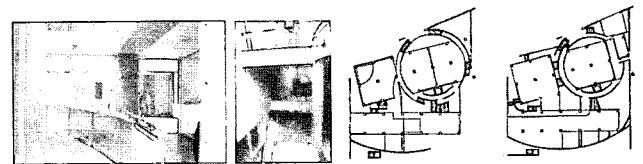
교토의 타카세(高瀬)천변에 세워진 상가건물 TIME’S는 기하학적 형태의 단순함과 미로적 체험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도 스스로도 “건물 내부로 거두어들인 길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된 미로와 같이 복잡함을 준다. 사람들은 제각기 독립된 상점사이를 걸으면서 갑자기 열려진 하늘과 만나고 수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²³⁾라고 하며 이 건물의 성격을 특징지었다.<그림 10>

건축가인 토미나가 유즈루(富永讓)는 안도의 작품에서 보이는 단순한 형태와 복잡한 체험에 대해 “광경이 연속되어 전개되는 현상의 형식인 <사물의 드러나는 상태>의 다양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물적인 구성형식인 <사



<그림 10> TIME'S, 일본 교토, 1984

물의 본연의 상태>라는 단순함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²⁴⁾ 즉 구성형식은 단순하게 현상형식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는 간단명료한 물적 형식 속에 수많은 장면을 구축하고 그것을 주입시켜 융합되게 하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면들은 물리적인 협소함을 뛰어넘어 복잡한 공간구성으로 생기는 건축과 생활과의 깊은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소재와의 접촉을 통해 삶에 대한 본질을 따지고 살아있다는 실감을 신체로 체험하는 실존적 존재감일 것이다. TIME’S에서는 개울의 물과 빛이 중요한 테마가 된다. 안도에게 빛과 물은 자연의 힘이며 건축과 별개의 존재가 아닌 공간의 일부이다; “빛은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바람이나 비는 육체를 통해 생활을 꾸민다. 그래서 건축은 사람이 그곳에서 자연을 느끼기 위한 매체가 된다.” 도쿄의 패션거리인 아오야마(青山)에 1989년 세워진 상업시설 콜레지오네(Collezione)에서는 사다리꼴의 대지에 원형의 로툰다를 관입시키며 한층 복잡한 보이드 공간이 나타난다. 지하 2층까지 뚫린 보이드는 로툰다의 주변에서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시선을 유도하고 빛과 어두움의 교차를 이끌어 낸다.<그림 11, 12>



<그림 11> 안도 타다오, 콜레지오네, 도쿄, 1989

<그림 12> 콜레지오네 평면 2층(좌), 1층(우)

내부에 산재한 보이드는 변화하는 빛과 자연현상을 받아들이며, 빈 공간 그 자체의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이드는 스미요시 주택에서처럼 이미 솔리드의 다른 모습이며 기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솔리드를 둘러싸며 현상학적 중심으로 작용

19)GA Document 01, Tadao Ando, p.9

20)Scott Marble ed., Architecture and Body, Rizzoli, 1988; Tadao Ando 의 'Shintai and Space'중에서(원저에 페이지표기 없음)

21)Ibid.

22)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p.128

23)황준 역, 안도 다다오 그의 건축 이야기, 도서출판 미건사, 1996,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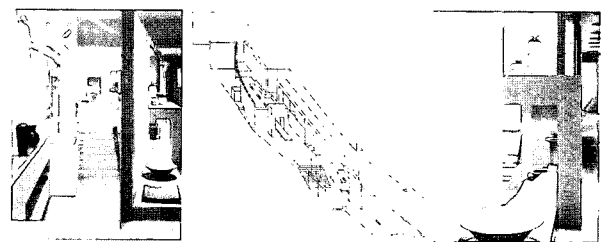
24)Ibid. p.106

한다. 안도는 “나는 건축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능을 추구할 수 있는지 본다. 그리고 난 후 건축이 얼마나 멀리까지 기능에서 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한다. 건축의 중요성이란 바로 건축과 기능과의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²⁵⁾라고 하며 기능이 담기지 않은 보이드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런 보이드들은 공간에서 불연속적인 움직임 만들어 낸다. 여기서의 불연속성이란 기능적이지 않은 공간, 즉 비어있음과 조우하며 생기는 움직임의 단속(斷續)을 의미한다. 연속의 단절과 보이드와의 연결은 신체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자연을 느끼는 시간이며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주변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현상학적 경험이 된다; “나는 전부터 기능성과 연속성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미요시의 주택에서는 거실과 주방은 불연속한 관계로 만드는 건축이 될 수 없을까를 생각했다.”²⁶⁾ 플래지오네에서는 원통과 상자라는 기하학적 원형이 중첩하여 미로 같은 순환통로를 만들고 산재한 보이드를 통해 빛과 어두움이 교차함으로써 상점 사이를 돌아다니는 동안 사람들은 수시로 중심에 들어가고 중심에서 다시 나오며 자연과 만나고 다양한 공간의 표정을 경험한다.

3.4. 데이비드 칩퍼필드

영국출신 건축가인 데이비드 칩퍼필드는 자신의 작품집에 실린 인터뷰에서 “나에게 있어 건축은 인간의 위치(the position of the individual)에서부터 출발한다. 바다를 보든지 점심을 준비하든지 혹은 독서를 하든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건축에서 어떻게 인간을 위치시키는가 하는 점은 건축에서 근본적인 부분이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내가 강조하는 것들은 영적인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고 장소의 정신(the sprit of the place)이 추구해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²⁷⁾라며 건축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아게마츠 유우지(上松佑二)는 “건축공간론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건축공간’이 어떻게 우리들의 ‘자아공간’과 만나는가 하는 것이다. 그 건축공간과 자아공간을 매개하는 것이어야 말로 ‘공간체험’인 것이다.”고 하며 객관적 공간과 실존적 공간간의 관계를 정리한다.²⁸⁾ 공간의 체험을 유도한다는 것은 이미 건축과 자아간의 만남을 유도하는 것이며 비록 칩퍼필드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실존적 혹은 현상학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움직임과 시선을 통해 주변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이것이 장소의 정신으로서 디자인의 테마가 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가 안

도의 작품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측면에서도 칩퍼필드의 건축에서 역시 신체의 중심적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칩퍼필드는 자신의 작품에서 두 개의 연결을 중요하게 추구하는데 하나는 인간과 건축경험을 연결하는 창 즉 시선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과 건축, 건축과 자연을 연결해 주는 보이드 즉 중정이다. 중정에 대해 케네스 프램튼은 “그가 설계한 건물에서는 그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보이드는 건물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²⁹⁾고 그 의미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있다. 1988년 오픈한 영국 런던의 윌슨 앤 고흐 갤러리(Wilson and Gough Gallery)는 도자기 공예품 솜으로 칩퍼필드의 공간어휘가 잘 드러난 실내디자인 사례이다. 오래된 기존빌딩의 저층부를 리모델링한 윌슨 갤러리에서는 매장의 폭이 좁고 기존의 설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점 때문에 좁고 긴 점포의 축을 따라 매장을 디자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칩퍼필드는 수평방향으로는 기존 설비를 감싸는 두꺼운 가벽을 설치하고 수직방향으로는 매장 안길이의 약 1/3 정도를 1.2미터 낮은 레벨을 만들어 이 둘의 중첩을 통해 중심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 <그림 13> 매장의 가운데 부분에 형성된 중심부는 보이드로서



<그림 13> 윌슨 앤 고흐 갤러리, 영국 런던, 1988

의 역할을 하여 내점객을 안쪽으로 불러들이며 크고 작은 벽감(niche)과 오프닝을 통해 여러 방향의 시선을 유도한다. 특히, 매장의 안쪽까지 한 눈에 파악되지 않으면서 진행에 따라 다양한 전시연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짧지만 변화가 많고 복잡한 공간경험을 하게 된다. 레벨차를 이용한 보이드 공간, 매장의 중심적인 진열대 혹은 가구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시선 경험의 유도, 간결한 디테일과 재료의 미묘한 변화, 천장의 변화와 조명의 불균질한 적용 등은 ‘장소의 정신’을 추구하는 칩퍼필드의 공간어휘들이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내부지향적 시선축은 사람과 전시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실내공간이 서로 의미있는 관계를 만들며 협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깊이를 만든다. 움직임에 따른 밀도 높은 공간경험이라는 칩퍼필드의 어휘는 런던 변화가에 설계한 겐조 매장(Kenzo shop)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좁고 길며 일부 지하공간을 조건으로 하는 이 매장에서 칩퍼필드는 다양한 공간어휘를 통해 시선의 연결, 인간과 공간과의 연결을 이끌어낸다. 지하매장으로 바로 연결시켜 오히려 단절감을 주는 대신에 의

29)Current Architecture Catalogues: David Chipperfield, Gustavo Gili, 1992,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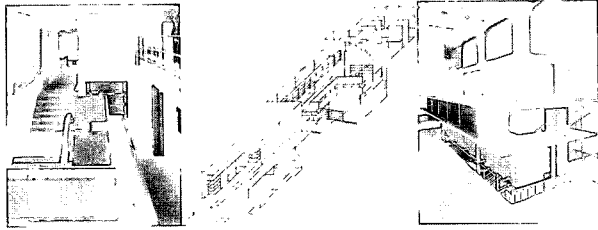
25)Scott Marble ed., Op cit.; Tadao Ando의 ‘Shintai and Space’

26)Tadao Ando, 안도타다오 건축을 말한다, 도서출판 국제, 2000, p.172

27)David Chipperfield Architectural Work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3, pp.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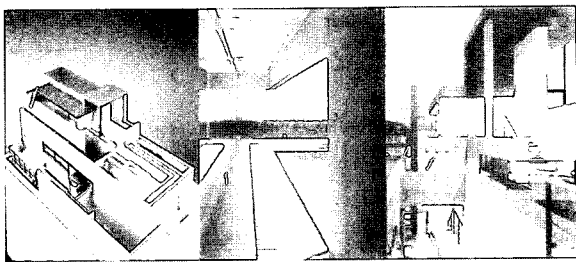
28)아게마츠 유우지, 건축공간의 미학, 현대건축사, 2000, p.131

도적으로 매장 내에 레벨을 달리한 장소들을 만들어 매장 전체가 자연스러운 수직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특히, 매장의 가운데에 위치한 계단을 감싸는 디스플레이 테이블은 밑면을 바닥에서 떼어 놓아 아래쪽으로의 시선을 유도하고 또 중간 부위에 오프닝을 만들어서 마치 내부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겐조 매장, 영국 런던, 1998

일본 교토에 지어진 토요타 센터(Toyota Center, 1991)는 건축으로서는 그의 대표작으로 두 개의 상자가 서로 물리며 가운데 위치한 중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이 구성된다. 바깥쪽의 상자는 건물의 경계를 설정하고 안쪽의 스틸로 마감된 상자는 내부의 레이어를 형성하며 사이공간을 만든다. 이 건물에서는 상자의 면들이 레이어로서 겹쳐지고 사이에 조그만 보이드가 이들을 연결하며 외부볼륨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처럼 압축된 층에 의한 미로적 구성을 쿠퍼필드 건축의 형식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건축공간에서 수평방향으로는 레이어로서, 수직방향으로는 레벨차를 통해 경계를 만들고 그 사이에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쪽과 저쪽이라는 혹은 안과 밖이라는 장소감을 형성한다. 이처럼, 보이드와 중정을 통해 중심을 제공하고 경계와 시선을 통해 인간과 건축공간을 연결함으로써 현상학적 중심성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15>



<그림 15> 토요타센터, 일본 교토, 1991, 모형(좌), 중정(중앙), 통로(우)

3.5. 현상학적 중심성의 특성 분석

중심과 경계로 형성된 장소와 주변 즉 세계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동선과 시선의 축은 인간을 의미 있게 둘러싸기 위한 현상학적 중심성의 요소들이다. 이들 요소들은 앞서 본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각기 다른 조형적 어휘로서 드러나며 각각의 건축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찰스 무어의 작품에서 중심은 에디콜라, 중층 테크, 타워 등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며 경계는 기둥 사이나 목재면의 개구부로서 개방되어 있어 투명한 막처럼 느껴진다. 목욕, 조리, 취침과 같은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담는 중심공간은 오픈 플랜이라는 현대적 평면계획 위에 다중심적으로 배치되며 실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통로는 다양한 시선, 은유적인 형태, 기억하기 좋은 색채 등과 더불어 이야기가 있는 움직임의 만든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서 현상학적 중심성은 보다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레벨에서 형성된다. 기하학적 원형 즉, 솔리드의 상자 혹은 보이드의 상자는 그의 건축에서 본질이며 힘이고 중심이다. 딱딱하고 차갑기에 더욱 신체의 존재를 반증하는 콘크리트 면에 의한 경계는 위로, 옆으로 혹은 아래로 열리면서 빛과 어두움, 비와 바람, 물과 대지 그리고 다른 공간과 사람들을 연결시킨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이런 관계성은 단순하기도 하고(스미요시 주택), 미로처럼 복잡하기도 하다. 중심을 둘러싼 체험의 관계망은 이처럼 자연과 인간을 엮어내며 현상학적 중심성을 구성하고 있다. 데이비드 쿠퍼필드는 실내디자인의 영역에서 실존적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색채와 패턴, 재료와 형태가 일반적 이슈인 상업공간 디자인에서 쿠퍼필드는 미니멀한 어휘를 사용하여 공간을 분절하고 이를 중심화함으로써 상품과 인간, 공간과 인간을 연결하며 의미있는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실내공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공간의 중심은 레벨의 차, 천장의 높낮이, 진열대와 같은 미묘한 수단으로 그 경계를 형성하며 벽감, 내부 오프닝 등을 통해 내부지향적 시선을 유도한다. 또한, 그의 건축 작품에서는 응축된 레이어의 겹침과 그 사이에 걸쳐있는 보이드를 통해 중심성의 어휘들이 보다 큰 규모로 발전하며 움직임과 시선, 내부지향적 구성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표 2 참조>

<표 2> 현상학적 중심성의 건축가별 특성분석

현상학적 의미	존재의 장소		세계와의 관계	
	중심	경계	시선축	동선축
찰스 무어	에디콜라, 타워	기둥간의 막, 판벽 등	다양한 시선의 방향과 은유적 형태, 색채 등을 통해 흥미로운 시선을 유도	다중심적 중심의 배치로 기능적으로 연결하되 주변의 공간에 대응함
안도 타다오	기하학적 입방체	콘크리트, 유리의 면	하늘, 빛, 물, 대지 등 자연과의 만남유도	미로적 복잡성
데이비드 쿠퍼필드	미묘하게 구현된 보이드	바닥과 천장의 레벨차, 재료·조명의 불균질한 적용	사물, 사람의 움직임, 다른 공간 등 다양한 대상으로 시선유도	공간의 불균질한 구분을 통해 움직임을 유도
공통점	구체적이며 구분가능한 장소적 공간의 형성	건축가의 조형의식에 따라 다양함	공간의 중심에 위치한 인간에게 의미있는 응시와 움직임은 공통적이나 그 '의미있음'은 건축가의 해석에 따라 다양함	

4. 결론

고전적 중심성의 핵심이 신성이라면 근대공간은 이를 상실함으로써 무한으로 확장되는 균질의 공간을 지향하며 탈중심적인 건축구성을 추구하였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근대건축적 모토와 함께 탈중심성은 공간의 비인간화라는 한계를 노출시켰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60년대 이후 인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인식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표출된다. 이런 일련의 인식은 공간구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신체를 중심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중심성의 변화로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어의 은유적 에디컬라와 다중심적 구성, 안도의 콘크리트 상자와 미로적 체험, 쿼퍼필드의 내부지향적 보이드와 시선의 중시 등은 현대에서의 기능적 요구조건과 현상적 가치를 합치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현상학적 중심성의 결과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중심성은 고정된 형태나 규범적 성격으로서의 조형적 구성체계라기 보다는 인간과 세계가 관계 맺는 형식에 대한 건축적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소와 경계라는 공간의 구획만으로는 진정 인간을 중시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런 중심공간을 토대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간이 줄 수 있는 안온함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이 생성될 때 비로소 현상학적 중심성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 명의 건축가가 서로 다른 형태어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형성과 실존적 체험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세계'라는 실존적 관계의 형성체로서 요약할 수 있는 현상학적 중심성은 인간을 건축공간구성에 의미적 변수로서 참여시킴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중심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건사, 1998
2.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3. 대한건축학회, 건축공간론, 기문당, 2003
4. 로버트 태버너, 팔라디오와 팔라디아니즘, 시공사, 1999
5. 멀치아 엘리아데, 상징·신성·예술, 서광사, 2002
6.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학민사, 2001
7. 아케마츠 유우지, 건축공간의 미학, 현대건축사, 2000
8. 안도 다다오 작품집, 이범재 역, 기문당, 1988
9.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9
10. 찰스무어 외, 주택의 장소성, 태림문화사, 1996
11. 한스 제들마이어, 중심의 상실, 문예출판사, 2002
12. 황준 역, 안도 다다오 그의 건축 이야기, 도서출판 미건사, 1996,
13. C.N. 슬츠,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1997
14. K.C.Bloomer, C.W. Moore, 신체·지각 그리고 건축, 1999
15. 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4
16. Tadao Ando, 안도다다오 건축을 말한다, 도서출판 국제, 2000,
17. 김광현, 건축형태에서의 수와 기하학, 건축사, 8903
18. 이철재, 바로크, 미래파, 디지털리즘에 나타나는 운동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5호, 2002. 12
19. a+u, The Work of Charles W. Moore
20. Charles Moore Building and Projects 1949-1986, Rizzoli, 1991
21. Current Architecture Catalogues: David Chipperfield, Gustavo Gili, 1992
22. David Chipperfield Architectural Work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3
23. El Croquis, Tadao Ando 1983-2000, 44+58
24. GA Document 01, Tadao Ando
25. Moore Ruble Yudell making place, Images publishing, 2004
26. Scott Marble Edt. Architecture and Body, Rizzoli, 1998

<접수 : 2005. 12. 22>